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전국적으로 소비활력이 약화되면서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도 전국 및 동남권은 소매판매, 신용카드 사용액, 소비심리 등 소비지표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권의 임대가격 역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향후 동남권 소비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생산이 7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가운데 수출, 고용 등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반등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

소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구조 및 소비패턴 변화의 여파가 더욱 크다. 그러므로 소득양극화,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와 대면채널에서 비대면채널로의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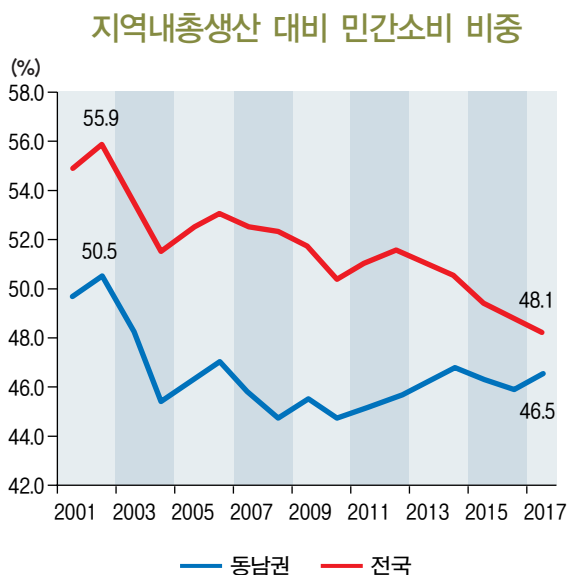
정부 및 동남권 지자체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득확충 기반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 고령친화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맞춤형 소비확대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기업이 무점포 소매판매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판매채널 확보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동남권 소비활력 지속적으로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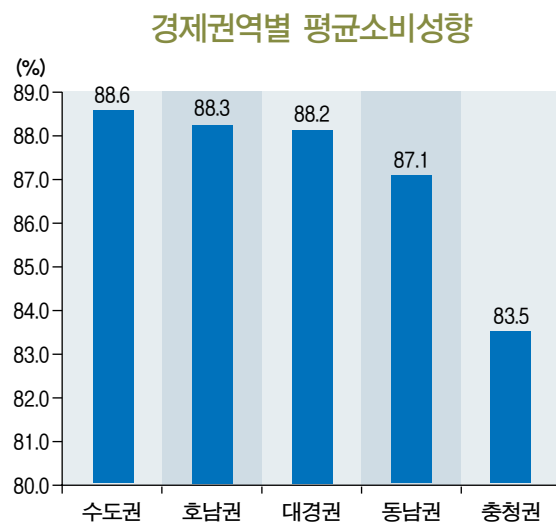
소비는 지역내총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중요요인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동남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비활력이 약화되면서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소비가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남권의 경우 2002년 50.5%에서 2017년 46.5%로 전국은 같은기간 55.9%에서 48.1%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소비성향¹⁾(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는 모습이다. 동남권 평균소비성향은 2002년 92.8%에 달했으나 2017년 87.1%로 낮아졌으며 전국도 같은기간 94.9%에서 87.8%로 하락하였다.

한편 경제권역별 평균소비성향을 살펴보면 수도권(88.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호남권(88.3%), 대경권(88.3%) 순으로 분석되었다. 동남권의 경우 87.1%로 조사되어 충청권(83.5%)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자료 : 통계청



주 : 2017년 기준
자료 : 통계청

1) 평균소비성향 = 최종소비지출 / 개인 총처분가능소득 × 100

[참조]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민간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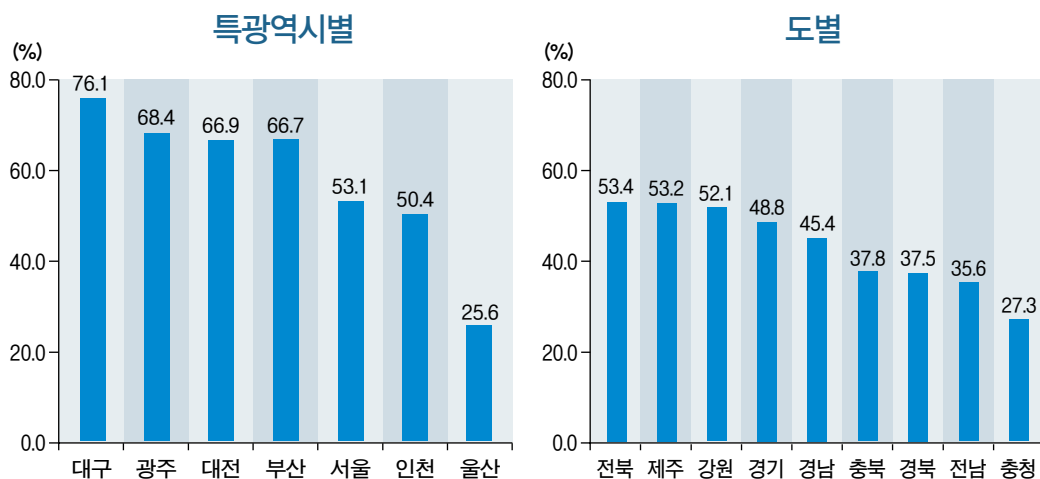
▣ 7대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가 7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주(68.4%), 대전(66.9%) 순으로 조사

- 부산은 GR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66.7%로 7대 특광역시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울산의 경우 민간소비 비중이 25.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이는 울산이 공업 및 수출 중심도시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순수출 비중이 높는데 주로 기인함

※ 지출측면에서 GRDP는 소비(C)+투자(I)+정부지출(G)+순수출(NX)로 구성

▣ 도별 기준으로는 전북(53.4%), 제주(53.2%), 강원(52.1%)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충청이 27.3%로 낮은 것으로 조사

- 경남의 GR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45.4%로 9개도 평균(43.4%)을 소폭 상회



주 : 2017년 기준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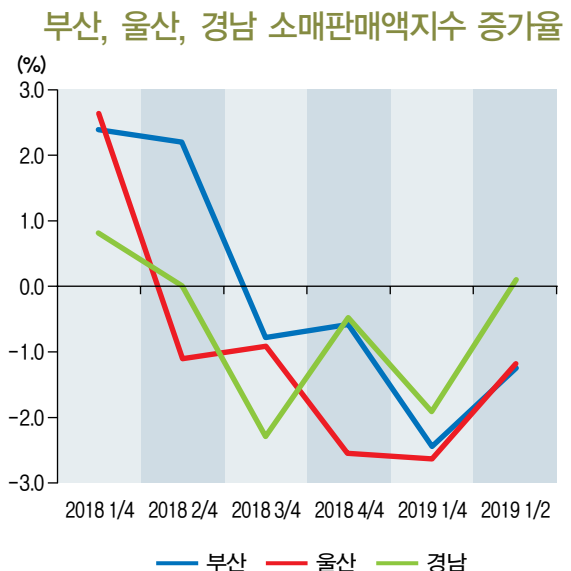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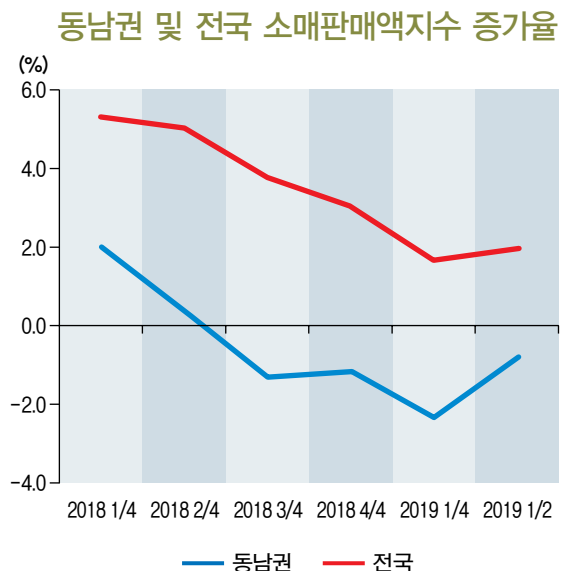
금년 상반기 소비도 부진

① 소매판매

동남권 소매판매²⁾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초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이다.

전국의 경우 동남권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2018년 2분기 이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중 2% 성장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 상반기에 5% 이상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증가세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금년 상반기중 부산(-1.9%), 울산(-2.0%), 경남(-0.9%)이 모두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분기들어 경남은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하였으며 부산 및 울산은 감소폭을 축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매업(G47) 및 자동차판매업(G45)내 6개* 업태를 대상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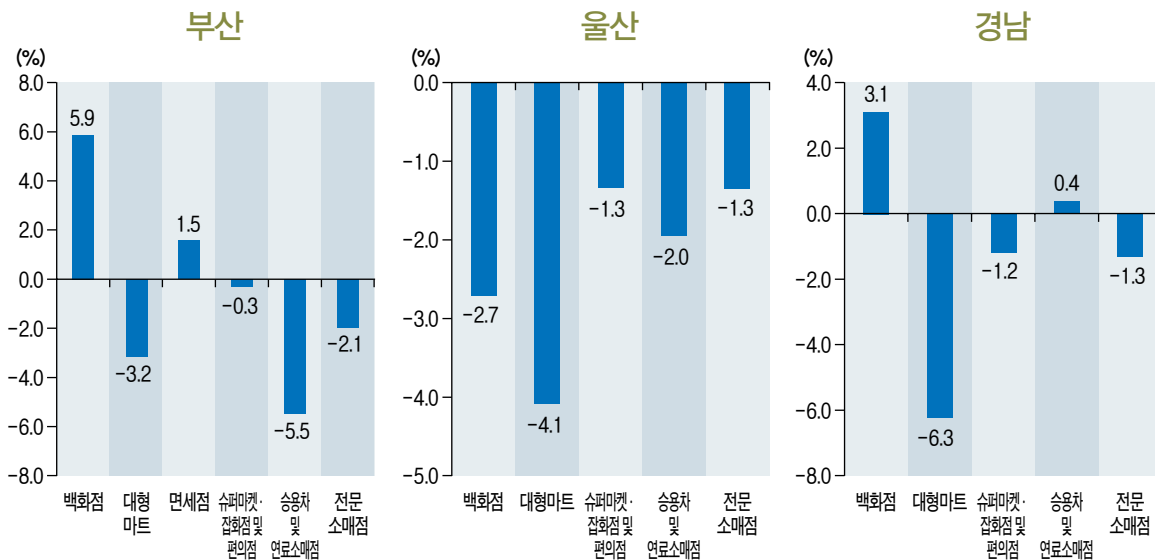
*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슈퍼마켓 · 잡화점 및 편의점, 승용차 · 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업종별 판매동향을 살펴보면 금년 상반기중 부산은 승용차·연료소매점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되었으며 대형마트(-3.2%), 전문소매점(-2.1%),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0.3%) 등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백화점(5.9%), 면세점(1.5%) 판매는 증가세를 시현하는 등 소비 양극화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상반기중 모든 업종의 소매판매가 감소하며 동남권 지역중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형마트(-4.1%)와 백화점(-2.7%) 판매의 감소 폭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남의 경우 백화점(3.1%)과 승용차·연료소매점(0.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1.2%), 전문소매점(-1.3%)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특히 대형마트(-6.3%)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주 : 2019년 상반기 기준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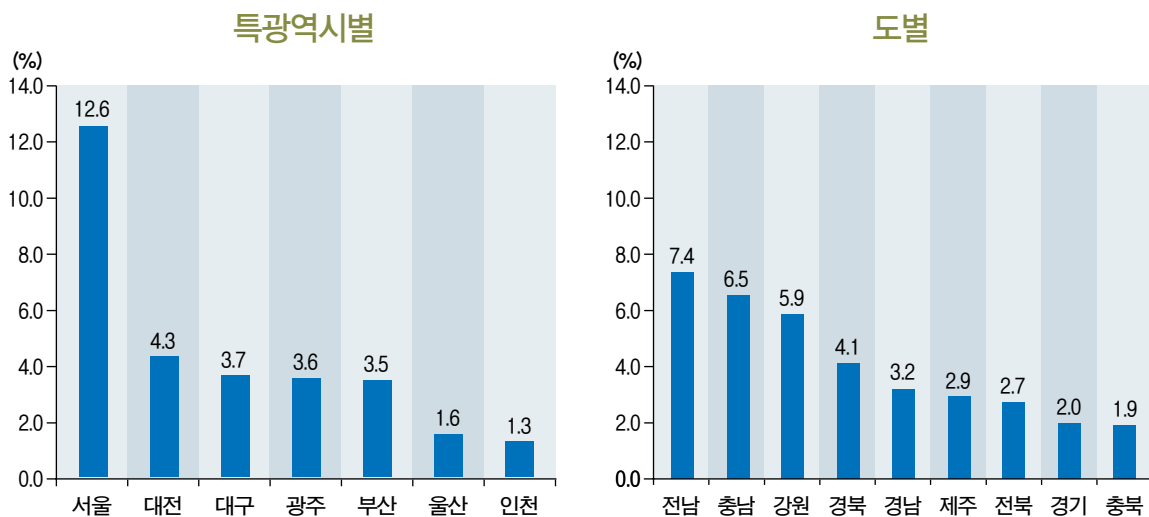
② 신용카드 사용액

동남권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세는 2018년 이후 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에도 전국은 7.4% 늘어났으나 동남권은 3.1%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³⁾.

7대 특광역시중에서는 인천(1.3%)을 제외하면 부산(3.5%)과 울산(1.6%)의 증가세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서울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2.6%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타 지역과 차별적인 모습을 시현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27.1%), 금융보험(13.4%), 자동차(12.7%)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충남(6.5%), 강원(5.9%), 경북(4.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3.2% 증가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주 : 2019년 상반기 기준

자료 : 한국은행

3) 2019년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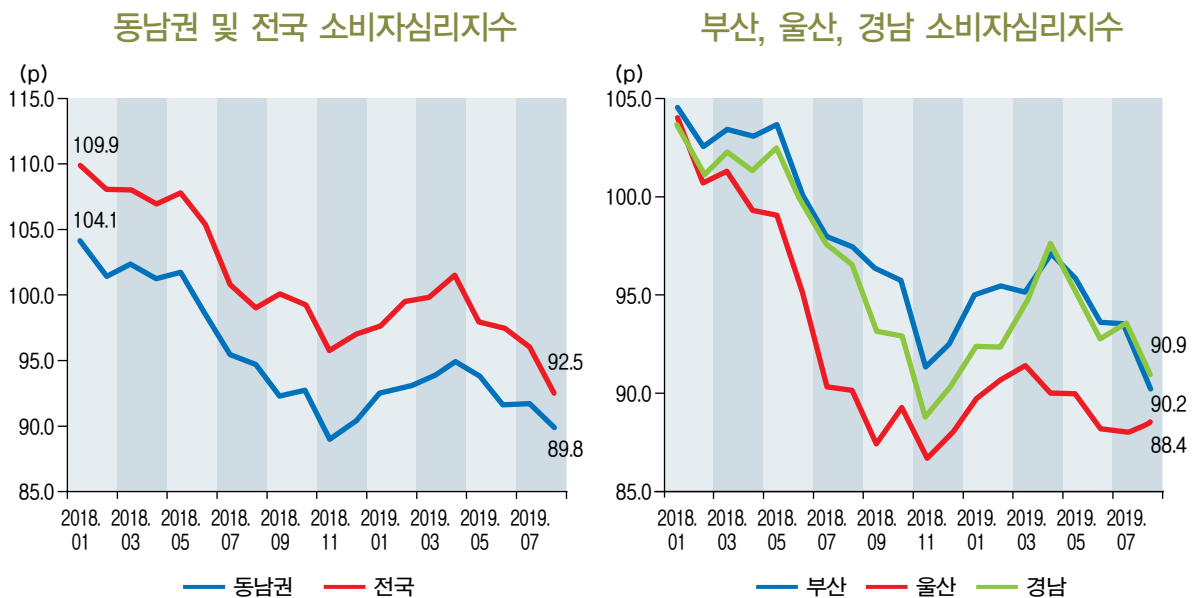
· 전국 261.6조원, 동남권 21.9조원(부산 10.9조원, 울산 2.9조원, 경남 8.1조원)

③ 소비심리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국의 경우 금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8월에는 92.5p까지 낮아졌다.

동남권의 경우 15개월 연속(2018.6월~2019.8월) 기준치 100p⁴⁾를 하회하고 있다. 특히 최근 4개월 연속 하락 폭을 확대하면서 금년 8월에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90p를 밑도는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도 부산, 울산, 경남 전지역이 100p 이하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8월 현재 경남 90.9p, 부산 90.2p이며 울산의 경우 88.4p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 동남권은 지역별 단순평균지수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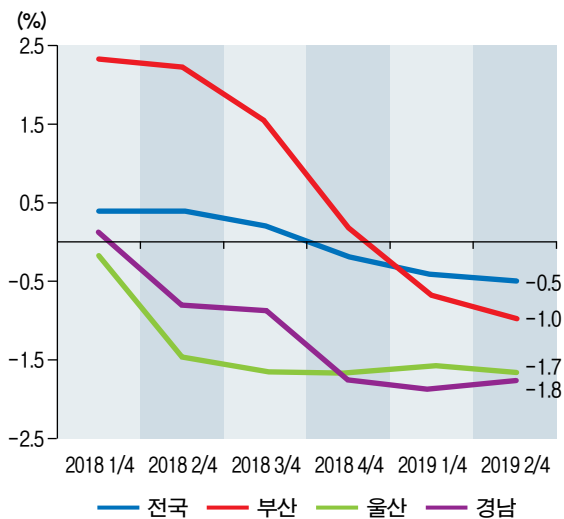
4)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2003~2018년중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p로 하여 100p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p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④ 상권

지역의 소비부진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중대형 상가의 임대가격이 금년들어 하락세로 진입하였으며 낙폭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및 경남 역시 마이너스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⁵⁾.

동남권 주요 35개 상권중 금년중 임대가격이 오른 곳은 부산 5개(동래역, 광안리, 사상역, 해운대, 현대백화점)와 경남 2개(마산역버스터미널, 김해) 등 총 7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 폭이 컸던 곳은 경남 창원, 거제 및 울산 동구 등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전국의 경우 196개 상권중 임대가격이 상승한 곳은 85개, 보합은 8개, 하락은 103개로 조사되었다.⁶⁾

지역별 임대가격지수 증가율



주 : 중대형 상가 기준
자료 : 통계청

주요 상권별 임대가격지수 증가율

상승		하락	
부산 동래역	1.8	경남 창원역	-9.1
부산 광안리	1.3	경남 거제읍포	-8.3
경남 마산역버스터미널	1.2	경남 거제	-5.8
부산 사상역	1.2	울산 전하동	-4.5
부산 해운대	1.0	부산 덕천역	-3.1
부산 현대백화점	0.9	경남 마산동서동	-3.0
경남 김해	0.7	부산 온천장	-2.9

주 : 1) 2019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동남권 35개 상권(중대형 상가)기준
자료 : 통계청

5) 동남권의 임대가격지수 증가율 패턴은 소규모 상가 및 집합 상가의 경우에도 중대형 상가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6) 전국기준 상위 5대 임대가격지수 상승지역

· 서울 왕십리(4.8%), 서울 서울대입구역(4.3%), 인천 계양구(3.1%), 서울 남대문(3.0%), 강원 속초중앙시장(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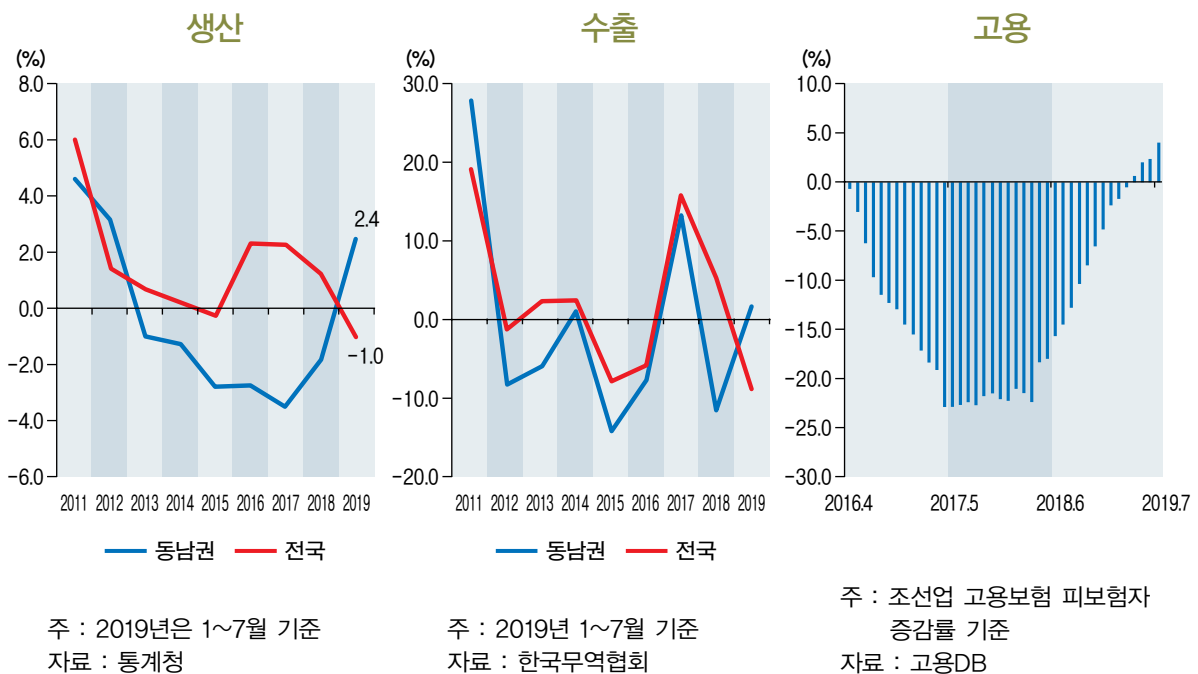
생산, 수출, 고용 반등에 힘입어 완만한 소비개선 흐름 기대

그동안 동남권은 장기간 소비가 부진하면서 지역경제 활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되고 소비 심리가 크게 훼손됨에 따라 지역상권도 부정적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 동남권 소비는 완만한 개선흐름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들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조업 생산이 7년 만에 플러스 성장한 것이 고무적이다. 금년 1~7월중 동남권 생산은 2.4% 성장하며 마이너스 성장한 전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고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한 전국과 달리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특히 지역고용 부진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조선산업 고용도 2016년 4월 이후 36개월간의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는 등 생산, 수출, 고용 지표 반등이 시차를 두고 소비에 온기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권 주요 경제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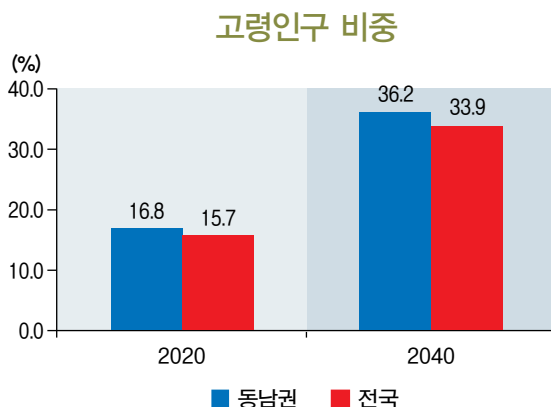


사회구조 및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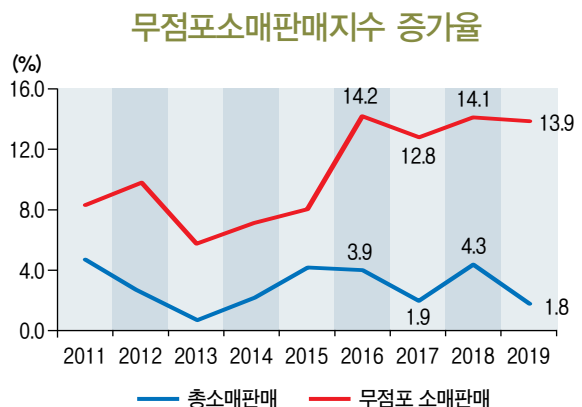
소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사회구조 및 소비패턴 변화의 여파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동남권의 경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증가세도 빠르게 나타나 소비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⁷⁾. 그러므로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소득확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령친화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맞춤형 소비확대 정책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소비패턴이 대면채널에서 비대면채널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2016~19년중 총소매판매는 연평균 3.0% 늘었으나 무점포 소매판매는 13.8%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무점포 소매시장 성장세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므로 기업이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지역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력을 높여 소비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주 : 만 65세이상 인구 비중
자료 : 통계청



주 : 전국 기준
자료 : 통계청

7) 동남권 고령인구 비중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20년 16.8%에서 2040년 36.2%까지 상승할 전망

[참고문헌]

김진웅, 노영진, “최근 가계 소비침체의 현상 및 원인에 대한 연구”, 2017.9

안병권, 김기호, 육승환,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17.7

정혜림, 박성희, “충남지역 가계소비 제약요인 분석 및 시사점”, 2018.7

최민우, “광주·전남지역 소비행태의 특징 및 시사점”, 2018.7

한국은행, “일본 가계의 경제구조 변화 및 시사점”, 2018.6

통계청, www.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상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중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BNK人side]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융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며
사람을 위한 일이니까,
고객을 위한 일이니까,
BNK금융그룹은 고객 안에서
금융의 길을 찾겠습니다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되어봅니다

BNK 금융그룹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BNK금융지주

제2019-09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9년 9월 30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